



한국 카리타스 방북 결과 기자회견 내용

∴ 2007년도 국제 카리타스 대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자 회의 관련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교황으로 취임하신 후 첫 번째 회칙인 2006년 1월 25일에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를 발표하시고, 전 세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보다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로마 바티칸 시국에 위치한 국제 카리타스를 대표하여 한국 카리타스의 위원장과 국제 카리타스 대북사업 대표자의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카리타스 대표단은

국제 카리타스 로마 본부 대외협력부장 호세 마리아 갈라르도 빌라레스(Jose Maria Gallardo Villares), 독일 카리타스 개발협력사업 컨설턴트 볼프강 게슈트너(Wolfgang Gerstner), 일본 카리타스 사무총장 타도코로 이사오(Tadokoro Isao), 국제 카리타스 대북사업 운영위원회 의장 함제도(Gerard Hammond) 신부, 미국 CRS(미국 카리타스, 가톨릭구제회 Catholic Relief Service) 자문회의 의장 존 찰스 시발론(John Charles Sivalon) 신부, 그리고 한국 카리타스 총무 이창준 신부와 총무 부장, 국제 카리타스 대북지원 실무책임자와 실무자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카리타스의 2007년도 대북협력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북한 현지를 돌아보고 사업을 위한 합의를 채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1. 사업추진 경과

그간 한국 카리타스는 약 1년여 간 국제 카리타스 대북지원 추진 기구(Facilitating Partn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2006년 11월 1일에 국제 카리타스 대북사업의 추진기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한국 카리타스는 두 차례의 책임자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다섯 차례의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개성과 평양에서 개최하여 2007년도 국제 카리타스 대북협력사업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금번 평양 방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부회장 김춘근)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4박 5일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 취약계층 관련 현장 방문

잘 아시다시피 카리타스는 사상, 종교, 이념, 제도, 성별을 초월하여 고통 받고 소외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본 사명입니다. 또한 저희 한국 카리타스는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북한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에 저희 대표단이 방문한 취약계층 관련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양시 제1 인민병원

금번 평양 방문 기간 동안 저희 카리타스 대표단은 평

양시 모란봉 구역에 있는 평양시 제1 인민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성 부국장과 병원장으로부터 의료 장비의 실태와 설비 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의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시 제1 인민병원은 850 병상과 780명의 직원을 가진 중급 병원으로서 소아과를 중심으로 45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시내의 11개 구역을 관할하는 이 병원은 13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서 2007년 3월 현재, 외래 환자가 1200명, 입원 환자가 470명으로 노동자, 농민, 어린이,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큰 규모의 중급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의 소아진료실, 수술실, 응급실 등의 주요 장비가 주로 70년대의 것들이며, 이후 제대로 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보건소 등에서 보내오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평양시 육아원

두 번째 방문한 곳은 평양 시내에 있는 평양시 육아원이었습니다. 평양시 육아원은 0세에서 4세까지의 고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195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3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육아원에는 130여 명의 직원들이 3부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창광 봉사관리국 식료품 가공 공장

세 번째로는 창광 봉사관리국 식료품 가공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창광 봉사관리국은 창광거리에 26개의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기구로 이른바 생활이 어려운 인

대북협력사업

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사실 북한은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생활이 어려운 인민들'이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광 봉사관리국은 평양 시내에 육아원과 탁아소, 유치원 등의 어린이들에게 빵, 과자류의 부식(副食)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일정 중 창광 봉사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식료품 가공 공장을 방문하고 원자재 보관 창고 등 열악한 공장의 환경과 설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 평양시 농업과학원 무균씨감자 조직배양시설

네 번째로 평양시 농업과학원 무균씨감자 조직배양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 카리타스가 북한 내 식량 자급을 위한 평양 및 근교 지역 협동 농장에 품질 좋은 씨감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지원하여 2005년 9월에 완공한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제 카리타스가 이곳의 운영에 필요한 배양 시약, 무균 부스, 실험용 기구 등 물품을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 두루섬의 채소 수경재배 사업 현장 등 북측이 추천하는 장소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3. 국제 카리타스 2007년도 사업합의서 채택

앞서 말씀드린 시설들을 방문하고 난 이후, 카리타스 대표단은 2007년도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평양 농업과학원 무균씨감자 조직배양실 운영 물품 협력에 대한 사업
- 평양시 제1 인민병원의 소아과, 수술실, 응급실의 장비 지원 사업

- 쌍방이 합의하는 평양 이외의 임의 지역(지방)의 병원과 보건 부문에 관한 협력 사업
- 쌍방이 합의하는 평양 이외의 임의 지역(지방)에 대한 제2의 무균씨감자 조직배양실 건설 사업 등의 농업 협력 사업

4. 한국 카리타스 2007년도 사업합의서 채택

이상의 국제 카리타스의 2007년도 사업합의서와 함께 한국 카리타스 단독으로 추진할 1개 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창광봉사관리국 식료품 가공 공장 시설과 식당에 대한 협력 사업

5. 의의

이상과 같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협력사업의 의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업은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환자(결핵 환자 등), 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을 1차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개발 협력의 성과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사업의 시행 지역에 있어 평양시 이외에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 지역(지방)에 보건과 농업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여 평양과 지방의 균형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사업들은 국제 기구간에 합의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기초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 이 사업들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사업별로 필요한 기술자와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게 하고, 상 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별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번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협력사업 추진의 또 하나의 의의는 한국 카리타스가 추진 기구(Facilitating Partner)가 되어 전 세계 201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162개 카리타스 회원기구들과 후원자들을 연계하여(Networking) 북한과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국제 협력의 전문가들인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북한 현지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의 방북 사례에 비추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 카리타스는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 카리타스 대북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 2007년 대북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를 토대로 하여 북측의 사업 추진 기구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세부사업계획서를 채택할 것입니다. 이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명, 사업내용 및 역할분담,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현장 방문 및 초청설명회, 사업운영 등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양측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평양, 개성 혹은 제3국에서 연2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 카리타스는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협력 사업의 위임기구로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측은 “낮이 뜨겁고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실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같은 민족이면서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한국 카리타스의 행보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합의를 채택함으로써 한국 카리타스는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협력 사업의 위임기구로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측은 “낮이 뜨겁고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실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